

국내 최초 볼리비아 농자재 수출 성공

나라바이오,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남미 시장 개척... 친환경 제품 '모두썩' 첫 항해

군산에 본사를 둔 친환경 농자재 전문기업 나라바이오(주)(대표 김일호)가 국내 최초로 볼리비아 시장에 농자재 수출길을 열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수출은 2023년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남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나라바이오는 볼리비아 유력 농업회사인 AGRISOS S.R.L.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뒤, 2년에 걸쳐 현지



작물 테스트와 까다로운 수입 등록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오는 10일 부산항에서 첫 선적이 이뤄지며, 칠레 아리카항을 거쳐 볼리비아 현지로 도착할 예정이다.

수출 품목은 나라바이오의 대표 친환경 유황 농자재 '모두썩 골드'와 '모두썩 칼마', 그리고 토양개량제 '땅부자 플러스' 등 총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친환경 농업을 선호하는 남미 시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호 대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구 반대편 남미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볼리비아 첫 수출은 우리 기업의 도전과 끈기의 결과이며, 앞으로 칠레와 페루를 비롯한 남미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기업지원단장도 "이번 성과는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나라바이오의 볼리비아 수출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 농자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북지역 기업이 세계 농업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LX국토정보교육원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국가공간정보산업에 이력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공간정보 인재 양성 산실로 자리매김

LX공간정보아카데미, 7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LX국토정보교육원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국가공간정보산업에 이력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5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지난 4일 열린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캠프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최우수(S등급) 공동 훈련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단순한 인프라 △협약기업 관리 △훈련 참여 지원뿐 아니라 △사업수행 역량 △사업실적 △예산 집행 규모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공간정보 전문 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상근 기자

아카데미는 올해에도 현장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재직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오픈소스 GIS,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성 및 드론 영상 분석 등 27개 과정을 수준별로 개설해 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이 과정은 공간정보와 프로그래밍 실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5년간 수료생의 평균 97%가 관련 업계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오상근 기자

탄소진흥원 '탄소기업 글로벌 수출통상 전략 세미나' 성황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대행 유경민)이 지난 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에서 탄소기업 글로벌 수출통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탄소소재·부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탄소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미국의 상하원 폐기물 처리법과 그래핀 등 첨단소재에 기반한 정부의 초역시경제 성장전략 발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고, △김현철 관세법인 PASSWIN 관세사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수출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도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주요국 탄소산업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탄소기업들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 요인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갈등 심화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동 단장은 "비·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배터리 시장 재편 K-방산의 글로벌 확장, 대미 조선 분야 협력 강화는 탄소소재·부품 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철 관세사 역시 "이직 체계화되지 않은 탄소나노소재의 HS코드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응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인도 수출 인증 지원 강화... 현지 밀착 지원 성과 가시화

전북자치도, CDSCO·FSSAI·BIS 등 인증 취득 돕고 기업 수출 경쟁력 뒷받침

전북특별자치도가 까다로운 인도 수출 인증 취득 지원을 본격 강화하면서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 정부가 최근 화장품·식품·산업·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과 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현지 통관과 시장 진입 과정에서 인증 확보가 기업 수출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인도 내 CDSCO(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FSSAI(식품·음료), BIS(산업·전자제품) 등 주요 인증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사전 준비 없이는 수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현지 상주 인력과 전문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현지 장기 출장 중인 경진원 직원은

기업과 바이어를 직접 연결하고, 인증 서류 점검과 절차 안내 등 실무 지원을 담당하면서 '밀착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증 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제품별 법령 해설 △인증 대행사 연계 △서류 검토 및 사후관리 △비용 및 소요기간 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등 신규 품목에 BIS 인증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도내 관련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 현지 지원 인력은 전문 컨설팅사와 협력해 상담·서류 검토·시험기관 안내·통관 시물레이션 등을 제공, 시각지대 없는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도내 화장품 기업 A사는 CDSCO 인증을 취득한 뒤 인도 대형 유통채널 입점에 성공, 현지 판매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또 다른 화장품 기업 P사는 인증 절차를 밟는 동시에 샘플 물량을 수출하며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식품기업 E사는 FSSAI 인증을 기반으로 아마존 인디아와 플립kart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동시 입점, 안정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인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미국·영국 등 제3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현지 지원 인력과 거점센터 협력 체계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화장품 분야 CDSCO 인증 4개사, BIS 인증 컨설팅 4개사(특장자, 산업용 펌프, 물탱크, 통가드레일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 절차 안내를 넘어 기업들이 공급해야 하는 파트너 필요성, 인증 유효기간, 카테고리 분류, 준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세세히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건설기계 기업, 베트남서 수출 교두보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건설기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수출상담회'가 베트남 현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에서 총 867만7,700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MOU 2건과 약 50만 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 체결이 성사되며 성과가 구체화됐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4일 하노이 Moanpick Living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도내 농·건설기계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 14개사와 총 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KOTIRA 하노이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을 지원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높였다.

상담에서는 발착물 기계, 수확기,



조사회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고, 바이어들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

5만톤 이내 추가 공급... 가공업계 지원

정부, 가공용 쌀 추가 공급... 소비자 쌀값 할인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쌀값 상승과 원료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가공식품업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최대 5만 톤 이내의 정부 관리양곡을 가공용 쌀로 추가 공급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할인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비중이 큰 쌀가공업체는 시중 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원료곡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 K-푸드 열풍을 타고 확대되는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수 성수기를 앞두고 업계 경영 안정과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해 신속한 공급 확대를 결정했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원료곡을 적기에 지원하고, 가

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쌀 할인 행사를 강화한다. 현재 농협·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쌀 20kg 한 포대당 3천원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데, 오는 9월 11일부터는 할인폭을 5천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3만 톤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대여해 쌀값 안정 조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의 효과와 산지 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추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급은 쌀가공식품업체의 원활한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